
	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	
		배포일시	2022. 3. 30.(수) / 총 2매(본문2)	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우정훈, 사무관 이광우, 주무관 이상민 • ☎ (044) 201-4585, 3540		
공동 배포	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경훈, 사무관 주민성 • ☎ (044) 203-4290, 4293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정부는 건설공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>

- ◆ (조선일보, 3.29) 시멘트 대란 결국 현실로, 이틀치도 안 남았다
- ◆ (e-대한경제, 3.30) 시멘트 재고 바닥... 건설현장 ‘셋다운’ 공포

- 최근 국제적인 유연탄 수급난으로 시멘트 생산 차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,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이를 위해 관련 업계를 통해 유연탄 수급 상황과 시멘트, 레미콘 생산·출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·해결하는 등 자재수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으며,
 - 유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러시아産 수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, 호주 등 대체국가로의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또한 전국의 시멘트 재고량은 70만톤 가량이며, 국내 수요 대비 생산능력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
- 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멘트 부족으로 건설공사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을 수시로 파악하고, 업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시 대응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생산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,
 - 시멘트,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(4.1일)를 국토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개최하여 업계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생산 차질 우려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광우 사무관(☎ 044-201-45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